

2026년 3월 신차등록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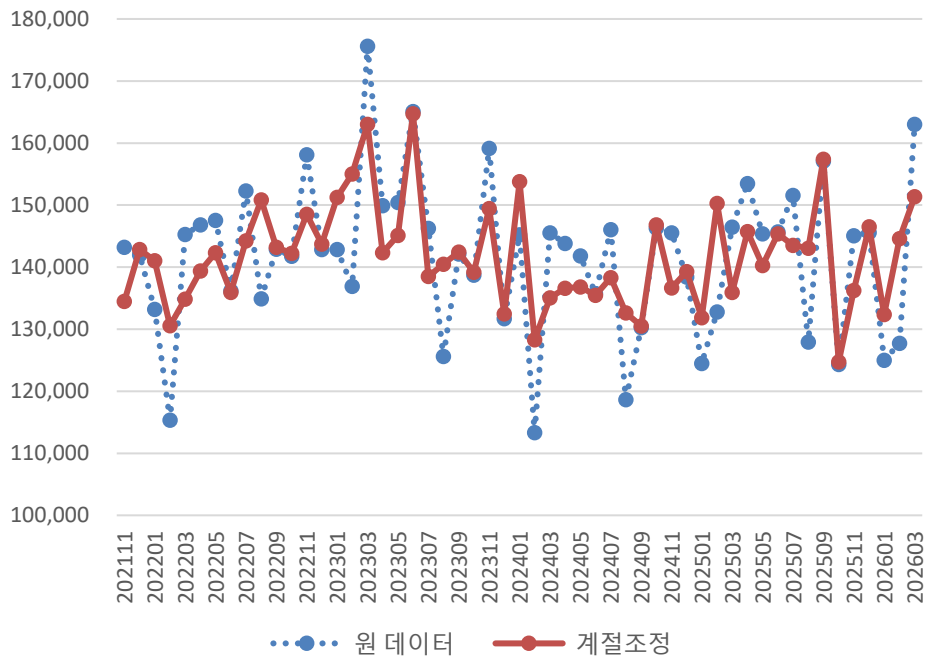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2026년 3월 한국 신차등록 현황 개요

3월 신차등록 대수는 163,041대로 전월 대비 27.65% 증가하였다. 계절 요인을 반영한 계절조정 신차등록대수는 151,338대로 전월 대비 4.7% 증가를 기록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1.33% 증가하며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신차 등록대수와 계절조정값을 나타낸 것이며, 모든 수치는 승용과 상용을 포함한 전체 거래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1> 신차등록 월별 추세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1>의 2026년 3월 신차등록 현황 요약에 따르면 국산 및 수입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 분야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1.33% 성장은 뚜렷한 회복 신호로 판단된다. 특히 전기차는 지난달에 이어 3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하며 시장에 탄탄히 자리매김하였다. 하이브리드 세그먼트 또한 전월 대비 32% 이상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표 1> 2026년 3월 자동차 거래 개요

	전체	국산	수입	전기차 부문	
				EV	HEV
3월 신차 등록	163,041	126,402	36,639	43,050	53,463
전월대비%	27.65	28.09	26.18	18.51	32.01
전년동월대비%	11.33	6.59	31.47	135.32	7.84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2> 2026년 3월 신차 Top 30 모델 상세 (국산)

순위	모델명	01월	02월	03월	평균가격
1	쏘렌토 (HEV)	6,693	5,580	7,549	41,404,159
2	EV3 (EV)	140	3,150	4,541	42,830,059
3	그랜저 (HEV)	3,567	2,227	4,095	44,731,795
4	아반떼 (ICE)	4,697	3,398	3,950	22,084,000
5	카니발 (HEV)	4,305	2,825	3,724	46,002,363
6	G80 (ICE)	2,743	2,703	3,403	60,980,870
7	FILANTE (HEV)	-	40	3,390	46,291,445
8	EV5 (EV)	106	2,927	3,273	46,889,765
9	셀토스 (ICE)	4,335	1,271	3,199	29,096,593
10	쏘나타 (ICE)	2,670	2,497	3,185	30,680,220
11	스포티지 (ICE)	4,161	2,816	3,168	31,253,251
12	그랜저 (ICE)	3,112	2,030	3,001	38,084,905
13	싼타페 (HEV)	2,208	2,104	2,983	40,380,523
14	레이 (ICE)	4,820	2,798	2,892	16,544,571
15	GV70 (ICE)	2,658	2,247	2,868	53,785,251
16	코나 (ICE)	2,147	1,971	2,662	26,220,210
17	아이오닉5 (EV)	50	2,682	2,583	50,862,176
18	쏘렌토 (ICE)	2,299	1,905	2,539	37,361,323
19	K5 (ICE)	2,588	1,661	2,373	25,400,379
20	스포티지 (HEV)	2,498	1,462	2,222	36,259,991
21	GV80 (ICE)	2,270	1,748	2,133	70,393,812
22	투싼(TUCSON) (ICE)	2,456	1,701	2,122	28,885,533
23	팰리세이드 (HEV)	3,541	2,432	1,841	54,995,655
24	EV4 (EV)	64	1,947	1,768	43,547,794
25	투싼 (HEV)	2,047	1,453	1,756	33,706,150
26	셀토스 (HEV)	65	90	1,723	33,130,122
27	EV6 (EV)	41	867	1,452	50,681,474
28	레이 EV (EV)	26	748	1,371	27,216,922
29	K8 (HEV)	1,365	1,053	1,357	40,303,906
30	아이오닉 9 (EV)	65	1,551	1,338	70,589,910
Top 30 총 등록대수		67,737	61,884	84,461	
가중평균 가격 (천원)		37,616	40,703	40,211	
매출액 (10억원)		2,548	2,519	3,396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협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2>는 2026년 3월 국산 신차 판매 상위 30개 모델의 현황을 나타낸다. 그동안 내연기관

차량과 친환경차(HEV/EV)가 각각 약 5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팽팽한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달 국산차 Top 10 시장에 HEV/EV 모델 6개가 진입하며 시장의 무게추가 친환경차로 기울는 양상이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5개월 연속 1위를 수성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지난 1월 7위, 2월 13위까지 하락했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월 들어 다시 3위권 내로 재진입하며 반등에 성공하였다. 2위를 기록한 EV3의 가파른 상승세 또한 시장의 주요 지표로 주목할 만하며, 아반떼는 꾸준히 Top 5 이내 순위를 유지하며 내연기관 모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2월에 이어 3월에도 가격대별로 뚜렷한 수요 군집이 형성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Top 5 모델의 평균 가격은 아반떼를 제외하면 모두 4천만 원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차량 가격대가 약 4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천만 원대 가격으로 유일하게 Top 5에 포함된 아반떼는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층,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요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셀토스(ICE), 쏘나타(ICE), 스포티지(ICE)가 3,000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9위에서 11위를 차지한 것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가격 민감도에 따라 신차 시장 내 수요가 명확하게 이원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산 신차 Top 30 모델의 가중평균 가격은 지난 1월 약 3,700만 원대에서 2월 약 4,000만 원대로 상승한 이후, 3월에도 4,000만 원대 수준을 유지하였다. 계절적 성수기와 판매 회복세에 힘입어 판매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Top 30 차량의 총매출은 3.3조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신차 시장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평균 단가 상승에 따른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은 3월 기준 수입 신차 판매 상위 30개 모델 현황을 보여준다. 그동안 Top 30내 랭킹을 유지해온 BMW X4 xDrive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수입차 Top 30 전 모델이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HEV)로 재편되었다. 이는 수입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국산 신차와 유사한 4,000만 원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테슬라 Model Y가 5,516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다. Model Y Long Range 물량까지 합산할 경우, 이는 국산과 수입을 통틀어 국내 전체 신차 시장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5,000만 원 이하의 가격 전략을 펼치고 있는 Model 3 역시 2위에 오르며 가파른 약진을

보였다. 원화 약세 환경 속에서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 테슬라의 시장 침투 범위 확대는 향후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측면에서는 Top 30 모델의 평균 가격이 6,000만 원 이하로 하락하며 전체적인 판매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최근 가격이 인상된 국산차와의 가격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3월 수입차 매출액은 지난달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3조 원을 상회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총매출액 격차 또한 점진적으로 좁혀지는 추세이다.

<표 3> 2026년 3월 신차 Top 30 모델 상세 (수입차)

순위	모델명	01월	02월	03월	평균가격
1	Model Y Premium RWD (EV)	1,135	5,275	5,516	46,253,662
2	Model 3 Premium L/Range RWD (EV)	-	311	1,905	49,325,302
3	SONATA (ICE)	1,330	1,059	1,771	23,784,190
4	Model 3 RWD (EV)	-	274	1,255	38,561,275
5	Model Y Premium L/Range AWD (EV)	425	1,740	1,232	56,096,753
6	BMW 520i (HEV)	1,162	1,067	1,229	60,802,848
7	Mercedes-Benz E 200 (HEV)	1,209	980	982	61,587,678
8	BYD SEALION 7 (EV)	656	621	807	40,106,444
9	Mercedes-Benz E 300 4MATIC (HEV)	783	851	752	75,894,814
10	BMW X3 (HEV)	690	643	641	67,417,629
11	BYD DOLPHIN (EV)	6	75	603	21,832,338
12	Volvo XC60B5 AWD (HEV)	377	383	579	61,850,432
13	Model 3 Performance (EV)	21	242	542	56,020,664
14	Mercedes-Benz E 450 4MATIC (HEV)	160	326	483	94,079,296
15	BMW 530i xDrive (HEV)	532	481	453	72,973,068
16	BMW 320i (HEV)	400	371	450	48,151,333
17	Mercedes-Benz GLE 450 4MATIC (HEV)	234	357	402	102,939,303
18	Mercedes-Benz GLC 300 4MATIC (HEV)	395	382	376	71,869,947
19	Q4 45 e-tron (EV)	32	87	376	53,639,628
20	Model X AWD (EV)	160	9	373	130,953,083
21	Polestar 4 LR D/Motor 20 21 Inch (EV)	17	136	373	67,642,627
22	Lexus ES300h (HEV)	514	357	351	62,633,048
23	BMW X5 xDrive40i (HEV)	303	312	343	109,969,679
24	Lexus NX350h (HEV)	734	278	304	61,770,066
25	BMW X7 xDrive40i (HEV)	300	289	300	127,643,333
26	BMW i5 eDrive40 (EV)	110	247	279	75,002,509
27	BMW 740i xDrive (HEV)	243	314	248	133,445,968
28	Toyota CAMRY (HEV)	101	252	241	46,110,788
29	ID.4 Pro (EV)	10	353	234	45,546,581
30	Lexus RX350h (HEV)	1	155	231	81,672,727
Top 30 총 등록대수		10,905	12,952	18,115	
TOP 30 가중평균 가격 (천원)		64,366	63,315	59,345	
Top 30 매출액 (10억원)		754	1,064	1,330	

※ SONATA (ICE)는 중국산 LPG이며, 수입차 합계 분석에서는 제외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4> 2026년 3월 국산 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비중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쏘렌토 (HEV)	3,273	1,896	628	1,024	140	588	43.4	25.1	8.3	13.6	1.9	7.8
2	EV3 (EV)	1,627	953	573	607	119	662	35.8	21.0	12.6	13.4	2.6	14.6
3	그랜저 (HEV)	1,622	1,154	452	583	96	188	39.6	28.2	11.0	14.2	2.3	4.6
4	아반떼 (ICE)	1,591	964	306	669	91	329	40.3	24.4	7.7	16.9	2.3	8.3
5	카니발 (HEV)	1,457	979	281	616	67	324	39.1	26.3	7.5	16.5	1.8	8.7
6	G80 (ICE)	1,408	856	237	412	48	442	41.4	25.2	7.0	12.1	1.4	13.0
7	FILANTE (HEV)	1,586	931	365	291	93	124	46.8	27.5	10.8	8.6	2.7	3.7
8	EV5 (EV)	1,003	635	511	660	88	376	30.6	19.4	15.6	20.2	2.7	11.5
9	셀토스 (ICE)	1,259	876	363	354	129	218	39.4	27.4	11.3	11.1	4.0	6.8
10	쏘나타 (ICE)	1,344	811	387	443	59	141	42.2	25.5	12.2	13.9	1.9	4.4
11	스포티지 (ICE)	1,419	861	328	383	92	85	44.8	27.2	10.4	12.1	2.9	2.7
12	그랜저 (ICE)	1,287	774	360	328	72	180	42.9	25.8	12.0	10.9	2.4	6.0
13	싼타페 (HEV)	1,125	1,002	231	256	46	323	37.7	33.6	7.7	8.6	1.5	10.8
14	레이 (ICE)	992	619	197	681	48	355	34.3	21.4	6.8	23.5	1.7	12.3
15	GV70 (ICE)	1,286	754	241	210	68	309	44.8	26.3	8.4	7.3	2.4	10.8
16	코나 (ICE)	1,051	634	339	384	91	163	39.5	23.8	12.7	14.4	3.4	6.1
17	아이오닉5 (EV)	861	705	412	374	61	170	33.3	27.3	16.0	14.5	2.4	6.6
18	쏘렌토 (ICE)	996	686	280	352	68	157	39.2	27.0	11.0	13.9	2.7	6.2
19	K5 (ICE)	1,093	502	283	265	74	156	46.1	21.2	11.9	11.2	3.1	6.6
20	스포티지 (HEV)	840	641	184	379	63	115	37.8	28.8	8.3	17.1	2.8	5.2
21	GV80 (ICE)	862	571	161	174	36	329	40.4	26.8	7.5	8.2	1.7	15.4
22	투싼(TUCSON) (ICE)	742	664	200	289	61	166	35.0	31.3	9.4	13.6	2.9	7.8
23	펠리세이드 (HEV)	753	427	140	203	35	283	40.9	23.2	7.6	11.0	1.9	15.4
24	EV4 (EV)	585	474	263	298	34	114	33.1	26.8	14.9	16.9	1.9	6.4
25	투싼 (HEV)	682	488	164	251	46	125	38.8	27.8	9.3	14.3	2.6	7.1
26	셀토스 (HEV)	647	493	184	256	42	101	37.6	28.6	10.7	14.9	2.4	5.9
27	EV6 (EV)	466	292	203	278	39	174	32.1	20.1	14.0	19.1	2.7	12.0
28	레이 EV (EV)	425	410	202	213	32	89	31.0	29.9	14.7	15.5	2.3	6.5
29	K8 (HEV)	481	289	129	178	18	262	35.4	21.3	9.5	13.1	1.3	19.3
30	아이오닉9 (EV)	532	303	180	171	24	128	39.8	22.6	13.5	12.8	1.8	9.6
산술 평균 비중							38.8	25.7	10.7	13.8	2.4	8.7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4>는 지역별 국산 신차 판매 대수와 비중을 나타낸다. 전체 Top 30 판매 물량 중 수도권이 38.8%를 차지하며 여전히 최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남권(25.7%)과 충청권(13.8%)이 그 뒤를 잇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까지 충청권을 앞섰던 호남권이 이번 달 판매 대수에서 뒤쳐진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영남권의 경우 수도권 다음으로 확고한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한편, 제주도는 8.7%를 기록하며 2월 대비 0.9%p 상승하였고, 강원 지역은 5%를 하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판매 비중의 패턴을 살펴보면 선호 차이가 일정 부분 존재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내 음영으로 표시된 구간은 각 지역별 상위 30%

판매 비중을 점유한 모델을 의미한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지역별로 특정 차종이 집중되는 군집적 패턴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종별 수요가 여러 지역에 걸쳐 보다 균등하게 분산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5> 2026년 3월 수입 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비중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Model Y Premium RWD (EV)	462	2,735	54	37	17	2,211	8.4	49.6	1.0	0.7	0.3	40.1
2	Model 3 Premium L/Range RWD (EV)	109	910	11	9	9	857	5.7	47.8	0.6	0.5	0.5	45.0
3	쏘나타 (SONATA) (ICE)	1,017	383	141	147	60	23	57.4	21.6	8.0	8.3	3.4	1.3
4	Model 3 RWD (EV)	91	654	4	3	3	500	7.3	52.1	0.3	0.2	0.2	39.8
5	Model Y Premium L/Range AWD (EV)	168	519	9	17	7	512	13.6	42.1	0.7	1.4	0.6	41.6
6	BMW 520i (HEV)	495	586	18	89	13	28	40.3	47.7	1.5	7.2	1.1	2.3
7	Mercedes-Benz E 200 (HEV)	346	479	67	59	16	15	35.2	48.8	6.8	6.0	1.6	1.5
8	BYD SEALION 7 (EV)	279	377	20	83	20	28	34.6	46.7	2.5	10.3	2.5	3.5
9	Mercedes-Benz E 300 4MATIC (HEV)	293	329	51	46	17	16	39.0	43.8	6.8	6.1	2.3	2.1
10	BMW X3 (HEV)	285	283	13	41	6	13	44.5	44.1	2.0	6.4	0.9	2.0
11	BYD DOLPHIN (EV)	200	313	36	35	11	8	33.2	51.9	6.0	5.8	1.8	1.3
12	Volvo XC60B5 AWD (HEV)	190	334	11	22	13	9	32.8	57.7	1.9	3.8	2.2	1.6
13	Model 3 Performance (EV)	78	253	3	2	1	205	14.4	46.7	0.6	0.4	0.2	37.8
14	Mercedes-Benz E 450 4MATIC (HEV)	193	210	37	28	7	8	40.0	43.5	7.7	5.8	1.4	1.7
15	BMW 530i xDrive (HEV)	167	236	8	31	5	6	36.9	52.1	1.8	6.8	1.1	1.3
16	BMW 320i (HEV)	205	215	2	20	4	4	45.6	47.8	0.4	4.4	0.9	0.9
17	Mercedes-Benz GLE 450 4MATIC (HEV)	145	186	10	40	10	11	36.1	46.3	2.5	10.0	2.5	2.7
18	Mercedes-Benz GLC 300 4MATIC (HEV)	145	167	21	27	10	6	38.6	44.4	5.6	7.2	2.7	1.6
19	Q4 45 e-tron (EV)	168	123	39	32	7	7	44.7	32.7	10.4	8.5	1.9	1.9
20	Model X AWD (EV)	27	293	-	1	1	51	7.2	78.6	0.0	0.3	0.3	13.7
21	Polestar 4 LR D/Motor 20 21 Inch (EV)	20	352	1	-	-	-	5.4	94.4	0.3	0.0	0.0	0.0
22	Lexus ES300h (HEV)	94	205	21	24	3	4	26.8	58.4	6.0	6.8	0.9	1.1
23	BMW X5 xDrive40i (HEV)	153	168	2	15	3	2	44.6	49.0	0.6	4.4	0.9	0.6
24	Lexus NX350h (HEV)	98	167	12	19	3	5	32.2	54.9	3.9	6.3	1.0	1.6
25	BMW X7 xDrive40i (HEV)	137	137	5	15	2	4	45.7	45.7	1.7	5.0	0.7	1.3
26	BMW i5 eDrive40 (EV)	105	146	5	20	-	3	37.6	52.3	1.8	7.2	0.0	1.1
27	BMW 740i xDrive (HEV)	92	129	2	15	3	7	37.1	52.0	0.8	6.0	1.2	2.8
28	Toyota CAMRY (HEV)	119	83	23	14	-	2	49.4	34.4	9.5	5.8	0.0	0.8
29	ID.4 Pro (EV)	154	33	26	19	1	1	65.8	14.1	11.1	8.1	0.4	0.4
30	Lexus RX350h (HEV)	70	126	13	14	5	3	30.3	54.5	5.6	6.1	2.2	1.3
산술 평균 비중								33.0	48.5	3.6	5.2	1.2	8.5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5>는 지역별 수입 신차 판매 대수와 비중을 나타낸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Top 30

전체 물량 기준으로 영남권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판매 비중이 33.0%에 그친 반면, 영남권은 48.5%를 기록하였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합산 비중이 83.5%였던 2월에 비해서는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두 지역이 여전히 80% 이상을 점유하며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집중도는 국산차가 상대적으로 지역별 분산된 판매 구조를 보이는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즉, 수입차 시장은 특정 지역에 수요와 거래가 집약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물류, 금융,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국산차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지역 편중 구조는 향후 수입차 브랜드의 유통 전략뿐만 아니라 캐피탈사의 영업 거점 설정, 가격 정책, 프로모션 설계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3월 국내 신차 시장은 지난달까지 이어진 침체 국면을 벗어나 유의미한 반등에 성공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11.33%의 성장을 기록한 것은 단순한 계절적 변동을 넘어 시장의 수요가 다시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달 관측되었던 하이브리드의 일시적 조정 국면이 해소되고,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동화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국산차 Top 10 중 6개 모델이 친환경차로 채워진 점은 이러한 변화가 시장 전반에 깊게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수요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난달 확인되었던 가격대별 균집화 현상이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4,000만 원대의 주력 수요군과 2,000만 원대의 가성비 수요군이 명확히 양분된 구조 속에서, 수입차와 국산차 간의 가격 격차 축소는 시장 재편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앞세운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가 국산차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브랜드 충성도를 압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산차 매출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와의 매출 격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판매 구조는 국산차의 분산형 수요와 수입차의 집중형 수요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고착화되는 흐름이다. 영남권과 수도권에 판매 비중의 80% 이상이 쏠려 있는 수입차 시장의 지역 편중 현상은 단순한 소비 성향을 넘어 물류와 금융 전략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3월의 신차 시장은 양적 회복과 함께 전동화 가속, 가격 기반의 수요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수요 비대칭성이라는 특징이 심화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향후 시장 대응 전략은 단순한 물량 확보를 넘어 세밀한 가격 포지셔닝과 지역 특화 금융 서비스, 그리고 전동화 라인업의 최적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부소장 (운영총괄)	책임연구원 (수원대/경영학부)
<u>조 성봉</u>	<u>김 원태</u>	<u>고 석빈 교수</u>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